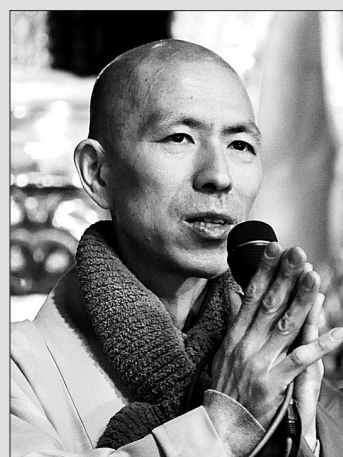


20년 쇠락 딛고 대표 포교도량 발돋움 한다

광주 관음사 신임 주지 소공스님

한때 호남의 대표적 포교도량이었지만 90년대 이후 20년간 쇠락의 길을 걸었던 관음사가 주지 취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광주의 대표적 도심인 충장로에 위치한 관음사는 지난 3월 8일 주지 소공 스님(사진) 취임 고별식을 갖고 옛 명성을 찾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행사에는 심향사 회주 성오 스님, 백양사 주지 원일 스님, 녹아원 주지 효공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문도스님 20여명과 송인현 신도회장, 김광태 백양사 신도회장 등 200여 불자들이 참여했다.

취임식은 난타, 판소리 축하공연에 이어 불교예, 헌화·헌향, 고불문 낭독, 주지 직인 전달, 격려사, 축사, 취임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창건 100주년을 맞은 관음사는 지난 1916년 일본인 엔도신이가 스님이 광동사로 창건했다. 해방 후 관음사로 개명하고 석파 스님, 상인 스님이 주석하면서 호남의 대표적 포교와 신행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1965년에 전국 최초의 불교유치원인 보문유치원 설립을 시작으로 광주불교청년회, 광주불교학살회, 대학부, 유머가사회 등이 지역 최초로 만들어져 호남지역 불교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

1993년 일본식 법당이었던 건물은 오늘날의 4층 규모로 신축해 불교서점, 관음사신원, 유치원과 호남불교대학을 운영했다. 하지만 95년 이후 여러 이유로 사찰이 쇠락의 길을 걸으며, 최근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날 주지로 취임한 소공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관음사가 옛 모습을 찾기 위

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주고 계신다. 살아가면서 이 공덕을 반드시 갚겠다"며 "법회를 활성화시켜 관음사와 인연있는 불자들을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음사는 교육과 전법, 자비봉사의 도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 실천 안은 △교육-백양사불교대학 개학 △기존 폐교된 보문유치원 자리에 평생교육원 유치 △지하 1층에 자비봉사단 설립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과 봉사활동 진행 등이다.

스님은 "광주불교의 중심도량 명성을 되찾아 지역불교발전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음사에서 오는 3월 21일 개강하는 제1회 백양사광주불교대학은 신입생 모집과 함께 백양사 강사 스님들의 전문강의와 수행을 진행하며, 매주 일요일회와 수요정진법회(다라니 33독) 등의 기도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순 개천사, '저수지 독 높이기 공사'로 훼손 우려

저수지 독 높이기 공사로 천연고찰 개천사와 천연기념물 비자나무숲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이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있다.

천연고찰 개천사(주지 보원)와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이재섭 위원장)는 3월 7일 대웅전에서 신도와 주민들,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동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책위원회는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독 높이기 공사'로 천연기념물인 비자나무 숲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천사 인근 가동저수지에서 진행되는 독 높이기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100여 원을 투입, 올해 4월 착공해 2020년까지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독 높이는 4m, 수위는 3m 높아지고 저수량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개천사 주변 11만8천㎡ 면적에는 수령

300년 이상으로 천연기념물 제483호인 비자나무 300여주가 자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보원 스님은 "월안대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인근 이양면의 쌍봉저수지 공사로 인해 천연 고찰인 쌍봉사 일대가 겪는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와 문화유산 훼손 사태가 개천사 일대서 재연될 소지가 크다"며 "천년 넘게 우리 선조들이 가꾸고 지켜온 개천사 일원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후손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안이한 대처로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치닫할 정도로 지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강성준 지사장은 "사업의 목적이 하류지역에 있는 논들에 용수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독 높이를 낮춰버릴 경우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민대책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동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화순 개천사와 3월 7일 대웅전에서 '가동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로 보인다. 현재 주변 문화재 관련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가 있는 500m 이내'는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천연기념물과 전통사찰로 지정된 개천사가 인근에 있어 정확한 문화재보호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는 지적이다. 화순군청 문화관광과 담당자는 "지난 11일 인근 문화재 보호와의 관련내용을 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전달했다"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통동화와 공예로 배우는 한국전통문화



(사)착한벗들이 3월 2일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전통문화 이해교실'을 열었다.

전북 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장, 참좋은우리절 주지)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전통문화 이해교실'을 열었다.

3월 2일~28일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강좌는 한국전통문화를 함께 읽고 토론한 뒤 동화책 내용 중 일부를 소품으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3월 2일 진행된 첫 수업에는 20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우리고유의 명절인 설에 대한 내용과 설빔 소품을 만들어보고 각자 자기 나라의 설 풍경을 소개하며 문화적 차이점 등을 함께 이야기 했다.

양은신 사업3팀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일반적인 생활문화 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의 정서를 깊이 있게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과정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오는 5월부터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출신국가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착한벗들은 오는 4월부터 '다꿈터'를 어린이, 청소년 지원센터(가칭)에서 동아시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을 강사로 활용해 동아시아 각 나라의 전통동화와 공예를 활용한 다문화감수성 제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캠프 참가자 모집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 이하 '환경연대')가 올해 1박 2일 어린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환경연대 부설기관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대표 지장)은 오는 3월 23일까지 어린이생태학교 2회, 자따따마 1박2일 5차례 등 총 7차례에서 걸쳐 매회 42명의 전국 초등학생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어린이생태학교는 5월 2일과 7월에 진도 천황산 쌍계사, 여수 영취산 흥국사에서 진행하며, 자따따마(자연따라 마음따라)는 3월 28일, 4월 11일, 6월 13일, 9월 19일, 10월 3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실상사, 미황사, 대원사, 쌍계사, 흥법사에서 진행된다. 참

가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참가비는 3~5만원이다.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은 그동안 어린이생태학교 16차례, 자따따마 1박2일 18차례, 해외탐방 프로그램인 선재역사문화탐방 6차례, 리더쉽 함양을 위한 청소년리더쉽캠프 2차례, 지리산을 걷고 지리산을 느끼고 깨닫는 청소년지리산마음 캠프 3차례 등 지난 7년 동안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거쳐간 학생은 연간 550여 명에 이른다. 올해는 '새롭게 두발로 가는 부처님 세상'을 주제로 청소년자전거캠프도 열린다. (062)223-36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로터스 갤러리 3인 작가 초대전 개최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주지 청학)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아남의 기회 <봄날을 부탁해요>' 오견규, 한희원, 박태우 3인 초대전을 개최한다.

'봄날을 부탁해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대전에서 작가들은 봄에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을 화폭에 담아 선보인다.

3인 작가 중 오견규 작가는 송광사성보박물관등 개인전 7회에 걸친 작가로 동시대 및 남부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한희원 작가는 대중미술상, 전남연극제무대미술상, 원진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서울, 광주, 전주 등에서 개인전 33회를 진행한 중견작가이다.

박태우 작가는 담양 죽실현에서 40년



동안 나무를 가꾸고, 그림과 자연을 더불어 살고 있는 작가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아남 씨는 "겨우내 얼어붙은 하얀 캔버스와 때서운 바람에 떨었던 가녀린 화선지에 봄 기운 가득한 작품을 풀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네트워크 정기총회 성료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박인순, 오종근, 유지원)는 3월8일 전북생명평화센터법당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존 '운영위원회'를 전격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부설 사업단체이 확대·증설되어 각 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논의의 틀을 확보, 개편하기로 했다.

이어 2014년 사업결산 및 2015년 사업추진의 건이 다뤄졌다. 올해 주력사업으로 전북불교 미래를 위한 후원이사회, 생명평화청년회, 생명평화대학생회 등의 사업과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한 자연음식문화원과 대안학교 등의 부설기관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의 틀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 뒤에는 '붓다로 살자 전북모임'이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을 초청해 승묵 스님, 운묵 스님 등과 함께 포살법회를 열고 붓다로 살 것을 서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불교 원효종 종도스님들에게 고 합니다

2015년 3월 6일자 법보신문에 향은(김 윤철)스님이 대법원 판결(2011다101155총회의원 선거 무효확인등)에 의하여 총회가 무효이므로 구 종헌중립체제에 의하여 임시종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종도들을 현혹하여 분열을 조장하므로 진실을 알려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대법원판결(2011다101155) 2015년 2월 16일자 판결선고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김윤철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피고 김윤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김윤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대한불교원효종에 대한 총무원장의 임명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불교원효종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김윤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김윤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단계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1991.7.12. 선고91다12905판결, 대법원2011.2.10. 선고2006다65774판결 등 참조)
2. 총회의원 선출 무효 확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의원 선출이 무효로 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원효종 총무원장의 임명 무효에 관한 상고이유 중 안전 통지 절

차의 하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 7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이 사건 총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1개월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두고 총회위원들에게 그 선출에 관한 회의 목적사항을 알려 이 사건 총회에의 참석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및 그 찬반의사 등에 관한 의견을 미리 준비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 그런데 이 사건 총회는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는 목적사항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채 소집되었고 안전 결의에 대한 이의가 있었음에도 총회의원들 중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 김윤철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그 선출 결의는 총회의 소집절차 내지 선출절차가 법인 아닌 사단에서의 총회 절차에 관한 일반 법리 및 총회법 제17조의 취지에 어긋나고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며, 그 선출에 티잡아 이루어진 총무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 론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총회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었고 2009.4.13.자 총회에서 선출된 총무원장(구 종헌중립상 대표권있는 총무원장)은 무효이며 그 다음 총회에서 종단의 대표권자로 11대 중정 해봉스님이 선출되었으므로 임시종정의 권한은 자동으로 소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해봉스님이 종정으로 선출되지 않았다거나 총회에서의 총무원장중심체로의 종헌중립 개정이 무효라야 향은스님이 여전히 본인이 임시종정이라고까지 주장한다면, 모든 종도가 알고 있는 사실을 혼자서만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일 것입니다.

더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되었을 뿐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임시종정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총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법원의 허가에 의한 총회의원 선거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임시종정 단독으로는 총회의원 선거를 공고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향은스님의 법도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며, 이제는 모든 종도를 무시하

고서 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며, 심히 우려스러움과 동시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종도여러분께서는 대중의 스승으로서의 스님이 개인적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어디까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금번 향은스님의 모습을 보시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도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시어 현혹되거나 동조하시는 등 더 이상 향은스님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합니다.

(판결문 전문을 원하시면 총무원으로 연락바람)

공 고

원효보살 1329주기 추모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 ◆ 일 시 : 2559(2015)년 5월 16일 오전 11시
- ◆ 장 소 : 경주시 용담로 79-48 (경주실내 체육관)
- ◆ 지참물 : 가사 장삼
- ◆ 문 의 :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총무원 054)743-0700

2015년 3월 12일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우석